

---

저도 나이 드니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이 쉽지 않네요.

자네 윈드서핑 해봤어? 나는 한강썰이야 왔다갔다 건널 수 있지, 하하.

윈드서핑은 바람과 물결의 흐름을 타는 거잖아.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슬러야 할 때도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물에 몇 번 빠지면서 몸으로 익혀야 해.

오래전, 지금처럼 청바지 브랜드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에 ‘닉스’라는 국내 브랜드가 외국 유명 브랜드들을 수년간 제압해서 주목받은 적이 있어. 홍선표라는 분이 시작한 브랜드인데, 이분이 매일 아침 2km씩 수영을 한다는 거야. 국제 풀 길이가 25m이니 왕복이면 50m잖아. 그러니까 40번을 쉬지 않고 왕복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교수님, 물을 탈 줄만 알면 네 바퀴나 40바퀴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러시더라.

내가 닉스 청바지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한번은 청소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롱다리로 보일까’라는 점에 착안해서 청바지 뒷단을 길게 했는데, 그 시즌의 해외 유명 브랜드가 같은 디자인을 유행시키는 바람에 닉스도 덩달아 히트를 쳤대.

그다음 시즌에는 슬림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무릎 부분을 조봇하게 만들었더니, 그게 마침 글로벌 유행이어서 또 대박. 하여간 홍 대표는 자기가 보고 베낀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 세계적 유행과 발맞추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라고 물었더니 뭐라 하시는지 알아?